



## 머리글

이상원 사도요한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씨앗과 열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빌거나, 다짐합니다. ‘올해는 꼭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올해는 꼭 이루고야 말거야!’ 등등.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소망,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저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며, 우리가 하는 사업들(사목활동)이 조금 더 이 사회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문득 이런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하느님의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무엇을 파는지 그 아주머니가 하느님께 물어보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잠시 놀란 그 아주머니는 생각 끝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부인!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팔지요.”』

혹시 저 자신이 결과(열매)만 바라고, 과정(씨앗의 발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정사목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평안과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갇힌 이들, 출소자들이라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그들 역시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 낙인을 세상 속에서 거둬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슬퍼지거나 원망이 가슴 한가득 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발아되는 것임을 알기에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씨앗을 말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씨앗들이 잘 발아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곳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두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12월 27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가 명동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수용자들과 출소자들을 기억하는 미사에 서 현대일 위원장 신부는 “감옥에 갇힌 이들이 무슨 사회적 약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이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노역형을 받는 이들이 수용소 안에서도 더 소외되기 쉽다.”며 “많은 봉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후원회원들이 기도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다가가셨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히브 10,34)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소외된 이들 중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김도훈 라파엘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김도훈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받

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사랑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 나를 갇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다.”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있는 봉사자나 후원자 모두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오셨다. 우선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

1월 7일(월)~8일(화)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이문동 성당 박동호 안드레아 주임 신부의 사회교리와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의 그리고 이보라 보나 강사의 성격유형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인해, 2019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1월 8일(화)~11일(금) 겨울신앙학교가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30여명의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신앙학교를 준비하고 함께 해 주신 살레시오회 신부님과 수사님,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김복주 데레사\_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흘린 피가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밝혔듯이, 하느님을 향한 복음적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신 순교자의 만남 안에서 기도 십일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십일조 생활과 묵상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장애인, 행려자, 미혼모,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성체조배, 매일 미사, 묵주기도로 작은 희생을 할 때 하느님 사랑의 희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역사 안에서 그분들의 삶이 세속적인 것에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역사와 평등 사랑, 문화 혁명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느님 나라로 변화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오 복음 25절 최후 심판 말씀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을 때, 지금의 대표봉사자님을 만나면서 구치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표정에 웃음기 없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느새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점점 변화하는 형제님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체험하였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자상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풍성함을 느끼며, 칠 남매의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한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준 이 귀한 봉사자의 자리가 한없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하느님의 딸로 부르심 받아 이런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되어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느님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소외된 모든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목요일에 만나는 형제님들께 영혼의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느님께서서 함께하실 수 있는 성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영혼이 빛이 되었듯이, 부족하지만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 직원분들, 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 이스마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스마엘은 하느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임신한 하가르가 사라의 구박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위로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창세 16,11). 이밖에도 구약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진 경우는 이사악(17,19), 솔로몬(2사무 13,25), 요시아 왕(1열왕 13,2) 정도인데, 주님의 천사가 아이 어머니에게 나타나 이름을 지어준 경우는 구약에서 이스마엘이 유일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즈카리야에게 나타나 요한의 이름을 지어준 것(루카 1,13)을 넘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루카 1,31). 물론 하가르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마리아의 경우는 탄생 예고를 받은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스마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느님은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창세 16,10) 약속하셨고, 복을 내리시며(창세 17,20), 이스라엘처럼 12부족을 세우십니다(창세 17,20; 25,16). 이사악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받았습니다(창세 17,16). 이사악이 모리아 땅에서 아버지 칼에 죽임을 당하기 직전 하느님께 도움을 받듯, 이스마엘 역시 광야에서 목말라 죽기 직전 하느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창세 21,20) 하느님 눈에는 모두 소중한 자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지혜 11,24).

인간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요청합니다(창세 21,9). 여기서 ‘놀다’는 ‘웃다’와 히브리어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이사악’이 웃음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마엘과 이사악이 함께 어울려 웃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닮아가기도 했는지 모를

니다. 사라는 다름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 다름을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의 상속 경쟁상대라 생각하고 배척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신약의 바오로 사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스마엘이 여종의 자식이며 육에 따라 태어났다고 말하고 이사악은 자유의 몸에서 난 약속의 결과라고 표현(갈라 4,23)하며 둘을 대립시키고 이사악을 우위에 둡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선입견을 형성합니다. 이사악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민족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이라고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제거하고 배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미 카인과 아벨의 일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한 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특정 계파, 종족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형제자매간 비교하고 한 학급 안에서 성적으로 경쟁하며 등수, 월급, 거주지로 평가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모두 돌보십니다. 웃음과 울부짖음을 모두 아우르면서 ‘듣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사악과 이스마엘이 화목하게 아브라함을 동굴에 안장하듯(창세 25,9)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회생활, 무엇보다도 수형 생활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한 사회는 출소자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기를, 남과 북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며 그리스도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화합과 대화를 하기를 꿈꿔봅니다.





##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듣고 나서

박명숙 세실리아

4년 전 즈음 우연한 기회에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었지만, 막상 후보에서 교정사목 자원봉사자 교육 공고를 보았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저를 지금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용자들은 척박한 양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은 사람으로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왠지 가까이하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서 창세기 마지막 날 “복을 내리신 하느님”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느님의 거룩함을 스며들게 하셨기에 수용자들도 신자들과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한순간의 잘못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막연히 교정사목 봉사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시간을 내어 잠시 그들과 함께 갇혀 있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초대하는 것이 봉사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수용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쇠창살 안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든 분에게...

저는 지난 2018년 12월 “성탄대축일” 미사 때 하느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던 2017년 10월, 떡을 준 다기에 참여했던 첫 천주교 집회에서 신선함을 느끼게 되었고, 가슴 한편이 뭔지 모를 덜컹거림에 머뭇거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난 하느님께서는 후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천주 성모 마리아님 빌어주소서” 할 때 아내와 어린 딸, 아들 생각이 편하게 다가와 가슴 찡한 느낌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도움으로 통신교리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교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수사님과과의 만남도 현재까지 이어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값진 ‘추억의 선물’을 받기만 했습니다.  
수용 기간이 많이 남아 세례는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송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어진다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신 교정사목의 봉사자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꼭 세례를 받아서 더욱더 책임감 있고, 보람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항상 곁에 계시는 하느님...  
나누어 가지는 사랑을 잊지 않고, 교정사목 관계자님들 모두를 위해 두 손 꼭 잡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충분히 충전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힘내주세요.  
저는 다른 곳에 가 있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소원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18. 12. 27  
홍OO 드림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형제님께서 김도훈 신부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p>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p> <p>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p> <p>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p> <p>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p> <p>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p>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9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8/12/11~19/1/11)

2018년 12월 ~ 2019년 1월에는 권현옥, 김정옥, 김택호, 박혜순 글라라, 송연호, 윤은아, 이요안나, 이청희 소화 데레사, 임의숙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동부구치소 성심회, 카푸친작은형제회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알림

- 2월 각 교정시설 개학
- 2월 9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2월 1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2월 13일(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모임 / 교구청
- 2월 22일(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7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